

# 함평 석두마을, 최우수 어(漁)울림 마을

해수부, 마을 콘테스트 진행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프로그램 공동운영 높이 평가  
태안 고남7리마을 등 5곳 선정



지난 9월 함평 석두마을에서 열린 '전남 귀어의 날'에 참석한 도시민 58명.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함평 석두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19년 어(漁)울림 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시민들의 귀어·귀촌 유지를 위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귀어·귀촌·다문화 가구가 57구 이상인 어촌마을 중 주민의 개방성, 갈등해소 노력, 상생협력 등을 통한 발전가능성 등이 우수한 5개 마을이 우수 어촌마을로 선정됐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3일간 공모를 실시했다. 지역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응모한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례발표와 평가를 진행해 주민의 개방성과 갈등해소 노력,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대상 1개 마을, 최우수상 2개 마을, 우수상 2개 마을 등 총 5개 마을을 어울림 우수 어촌마을로 선정했다.

대상은 받은 충남 태안군 고남7리 마을은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적인 '어촌계 연금제도' 운영과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극복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함평 석두 마을은 매월 1회씩 마을 주민회와 부녀회 밤상나눔 행사를 통해 귀어·귀촌인과 교류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어로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 개장 등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귀어·귀촌인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협동성이 돋보였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도시민귀어귀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귀어예비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28일 '전남 귀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10월 21일-

24일 단기어촌정착프로그램인 '어촌탐구생활', 11월 11일~12월 10일 장기어촌정착프로그램인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등을 주최하는 등 도시민 귀어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 화성시 백미리 마을은 귀어인들에게 준계원 자격 부여, 귀어인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마을어장 공동경영과 어장경영기술 전수 등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경남 통영시 영은마을과 충

남 태안군 창기7리 마을은 기존 주민과 귀어·귀촌인이 합심해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 상생발전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

장묘인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다문화인과 기존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스스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취·창업캠프 워크숍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년 지원사업 참가자 220명은 지난 14~15일 합동 워크숍에 참여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 내달 13일까지 7차례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연말까지 한 달 동안 전남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캠프와 워크숍이 열린다.

24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12일부터 12월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과 '청년 내일로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교육과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청년 내일로'와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에는 각각 300명과 140명의 전남지역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참가했다. 이들은 일정한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2년 동안 우수 사업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

합동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 ▲창의 교육과정 ▲산진지 견학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영업 전략 수립' '판매 목표 도출' 등을 배우는 '영업실무 관리자 2급'과 'SNS 마케팅 이론' '스마트폰 사진촬영'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마케팅전문가 2급' 마케팅 데이터 분석사 2급' 등 수업을 받았다. 강연에는 이택열 청년기업가정신협회 창업센터장과 윤장섭 H&C직무인증원 대표이사, 윤성훈 파고다 취업 대표 강사, 김해우 H&C 직무인증원 컨설턴 사업부 이사가 나섰다.

지난 14~15일에는 내일로 참가자 150명과 유통활동가 70명이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1차 합동 교육을 받았다. 이어 참가자 220명은 21~22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차 교육을 수료했다. 이들은 28~29일 '유통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거친 뒤 오는 12월12~13일 여수에서 통합워크숍을 가지며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고추 생산량 '감소'

전년비 38% ↓ ... 전남은 증가

올해 고추 생산량이 전남은 소폭 증가하고 광주는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고추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생산량은 각각 171t, 1만1413t 등 1만1584t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생산량 1만651t보다 7.2% 증가했고 광주지역은 지난해(276t)보다 38%나 줄었다.

이는 재배면적 증감량의 차이 때문으로, 전남지역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4914ha로 지난해(4456ha)보다 10.3% 증가했다. 반면 광주 재배면적은 91ha로 지난해(104ha)보다 12.5% 작아졌다.

다만 전남지역은 10a(1000㎡)당 생산량이 232kg으로, 지난해보다 2.9% 줄어, 재배면적에 따른 생산량 증가폭을 줄였다.

올해 전국 고추 생산량은 7만8437t으로 지난해 7만1509t 보다 6928t(9.7%)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 벼 보급종, 신동진·새일미 58% 차지

올 쌀 생산량 1980년 이후 가장 적어... 전남 전년비 5.3% ↓

내년 전남지역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은 전북 '신동진'이 가장 많았고 새일미, 일미, 영호진미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을 기록하면서 내년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도 크게 줄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에 파종할 '2019년산 벼 정부보급종' 공급 계획량은 전남 3315t을 포함한 전국 2만 130t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753t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430t ▲경북 3426t ▲전남 3315t ▲경기 2506t ▲경남 1482t ▲강원 1195t ▲충북 1023t 등이 뒤를 이었다. 총 24품종이 공급되며 메벼 21품종 1만8878t, 찰벼 3품종 1252t으로 도별 농업인 품종 수요를 고려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 공급되는 정부 보급종 벼는 3315t으로 지난해 공급량 4200t보다

18.3% 감소했다. 이번 공급량은 농민수요, 품질고급화 및 논 타작물 재배전환 등을 고려한 양으로, 정부 구매결과와 정선 작업에 따른 감모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올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72만5094t으로 지난해 생산량 76만6022t 보다 5.3% 줄었다.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도 0.6% 감소했다.

전남지역 공급량의 58.8%는 전북 '신동진'(1100t)과 '새일미'(850t)가 차지했다. '일미'(570t), '영호진미'(280t), '동진찰'(200t), '백옥찰'(150t), '미품'(90t), '운광'(35t), '새누리'(20t), '조평'(20t) 등도 신청 대상에 올랐다. 전남 도농업기술원이 전남쌀 대표 품종으로 기르기 위해 개발한 '새청무' 품종은 정부 보급종 중재를 1년 앞당겨 2021년부터는 안정적인 종자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오는 12월20일까지 사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벼 정부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

신청단위는 20kg(1포)이며, 종자는 신청할 때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0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농가에 공급된다.

올해는 벼, 감자, 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기간을 일원화했다. 벼 이외의 감자·옥수수 보급종 신청기간이 조금씩 달라, 이에 대한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벼 정부보급종은 생산부터 농가에 공급될 때까지 밭아울, 수분함량 등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량종자만 공급하고 있다. 농가에서 자가 채종한 종자보다 품종 고유특성이 잘 나타나고 생육이 좋아 6% 정도 수량 증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위원장 박삼자)는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노인요양복지시설 '평강의 집'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NH농협은행, 화순 청소년 대상 '금융체험관' 운영

NH농협은행이 화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체험관'을 운영했다.

24일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22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순 진로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금융체험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로상담', '은행원 체험', '금융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NH농협은행 봉사단 'N돌핀' 회원들은 지역 청

소년의 금융증과 진로고민을 상담했다.

전남영업본부는 지역 초·중·고교를 방문하며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옥원 전남영업본부장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금융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올바른 금융습관을 갖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